

## 제65차 IAEA 정기총회 1일차 하이라이트



**제** 65차 IAEA 정기총회 첫날 본회의가 시작되며 주 오스트리아 쿠웨이트 Sadiq M. Marafi 대사가 이번 회의 의장으로 호선되었다.

IAEA Rafael Mariano Grossi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COVID-19 상황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AEA의 핵물질 오용 방지를 위한 검증 작업의 지속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과 진단을 위한 장비에 기여한 129개국과 동물원선 질병의 관찰, 감시, 조기 발견과 통제를 위한 각국의 국가 질병 진단 연구소 간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IAEA의 '동물원성 감염증 통합 조치(ZODIAC, Zoonotic Disease Integrated Action)'의 착수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을 강조했다.

Grossi 사무총장은 원자력이 “기후변화를 위한 해결방안 그 자체이면서 또한 일부분”이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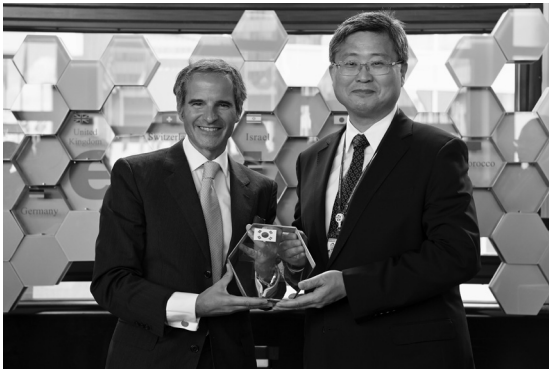
IAEA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본 회의에서는 UN 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발표되었다.

### 부대행사

부대행사 '원자력 안보 E-러닝: 전 세계의 원자력 안보 전문가들과 효과적으로 교류하는 방법'에서는 IAEA의 원자력 안보 E-러닝 모듈 세트를 소개하고, 상호교신형 발표 세션을 통해 사용자들과 교류했다. 참가자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개발에 참여했던 IAEA 전문가들의 지도 하에 모듈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ReNuAl2(원자력응용연구소 현대화사업): 과학을 위한 건설' 행사에서는 비엔나 근교의 Seibersdorf에 위치한 IAEA 원자력응용연구소

의 현대화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암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IAEA가 더욱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이 행사에서는 원자력응용연구소 내 식물육종연구실(Plant Breeding Laboratory)에서 연구 중인 질병 저항성 커피나무 샘플을 참가자들에게 소개하고, 지구환경연구실(Terrestrial Environment Laboratory)에서 전 세계 탄소 주기 기후변화에서 온실가스의 문제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원자력응용연구소 현대화사업(ReNuAL2) 부대행사에 참여한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빈 국제기구대표부 신재현 대사

‘통합 원자력 안보 지원 계획(INSSP, Integrated Nuclear Security Support Plans): 15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행사에서는 INSSP의 영향과 각국의 요구를 보다 잘 수용하기 위해 어떻게 IAEA가 지원 체계를 진화시켰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가별 성명서 포털(SDP, State Declarations Portal): IAEA 안전조치부(Department of Safeguards)와 정보 교환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행사에서는 국가 또는 지역별 관리 주체가 IAEA 안전조치부와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SDP의 기능에 대한 강좌가 이루어졌다.

원자력 지식관리 디지털 허브 행사에서는 원자력 지식관리 지침과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거나 신규 원자력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고려 중인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허브 기능에 대한 강좌가 있었다.

식물 돌연변이 육종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위한 ‘식물 돌연변이 육종 및 관련 생명공학 공로상’ 행사에서는 20개국 28명의 연구자와 연구팀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이번 시상에는 지난 10년간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신규 돌연변이 품종 개발에 대한 공로상 11점, 여성 연구자상 10점, 젊은 연구자상 7점이 포함되었다.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인 ‘IAEA 넷제로 챌린지: 결승 진출자를 만나다’ 행사에서 오늘 우승팀이 발표되었다. 행사기간 동안 6개의 결승 진출 논문의 저

자들은 저탄소 에너지원이 파리 협정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작성하여 IAEA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였다. 싱가포르팀이 우승자로 발표되었고, 우승팀의 대표는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COP26)에 참석하여 그곳에서 개최될 IAEA 행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회원국 활동

영국이 조직한 '기후변화 적응과 회복을 위한 기술' 행사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감시하고 완화, 적응을 위한 원자력기술과 그 적용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엿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최신 기술들이 어떻게 농작물에 적용되어 식량과 물 안보를 향상시키고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강좌를 청취했다.

일본 대표단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제염해체 진행상황' 행사에서 해체 진행 상황과 경험을 공유했다.

대학 네트워크 협력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진 '팬데믹 상황에서의 대학 네트워킹: 도전과 장점' 행사는 러시아에서 조직했다. 발표자들은 가상 네트워킹이 교육 네트워크에 위협이 되는지 또는 추가적인 네트워크로서 작용할 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했고, 참가자들은 연구개발과 산업 측면에서 대학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일본이 조직한 '알파입자 방출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동위원소 공급: 225Ac와 국제기구의 기대 역할' 행사에서는 225Ac와 PSMA-617과 같은 알파입자 방출 방사성의약품의 실용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 행사에는 제약업계, 연구계와 국제기구들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 다른 활동들

연례 조약 행사는 IAEA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다자간 조약의 보편적인 임무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짐바브웨 대표단이 다양한 다자간 조약 준수에 동의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담긴 문서를 기탁했다.

국제원자력안전그룹(INSAG, the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Group) 포럼 연례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폐로 진행 상황과 외부 위험성 평가 개선사항,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시행되는 규제와 안전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INSAG는 고위급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그룹이다. **KIIF**